

본 콘텐츠는 홈페이지 유료 상품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응주 땅에 사는 쥐 서대주는 당나라 태종을 도운 공으로 벼슬을 얻어, 온 종족을 초청하는 잔치를 베푼다. 스스로를 백면서생의 선비라고 일컫는 하도산의 다람쥐는 천성이 게을러 빈궁하게 살던 중 서대주의 잔치에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고 식량을 받는다. 겨울에 다시 굶는 신세가 된 다람쥐는 서대주를 찾아가 구걸했으나 거절당한다. 이에 원한을 품은 다람쥐는 아내 다람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곤륜산의 백호산군에게 서대주가 자신의 식량을 도적질했다고 소송하고, 백호산군은 그의 말을 들어 보고자 서대주를 잡아 오게 한다.

“네 어찌 이같이 무식 무례한다? 글에 일렀으되 ‘수중청룡은 만어왕(萬魚王)이요 산상백호(山上白虎)는 백수장(百獸長)이라’ 하였으니 나는 백 짐승의 장수어늘, 네가 내 면전에 이르러 길게 읊하고 절을 아니 함은 어쩐이오?” / 서대주 안색을 불변하고 눈을 깜짝이며 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하여 왈,

[A] “산군(山君)의 이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 온지라, 대개 산군은 천산만악과 태산오악을 살피며 돌아다니시어 짐승의 선악을 살피시는 직임(職任)이요, 의신(戾身)*은 멀리 바다 한구석에 있고 아는 것이 적어서 거친 뒤편과 깊은 골에 웅거하여 다만 산군 절제(節制)를 받을 따름이로되, 만리강산과 사해팔황(四海八荒) 안에 허다 만물은 당천자(唐天子)의 신민 아닌 것이 없는지라, 이제 의신 몸 위에는 당천자께서 나리신 교지를 머물렀는고로 기리 읊만 하고 절하지 아니함은 실로 당천자에게 욕되지 않도록 함이요 산군의 위엄을 범함이 아니오니, 원컨대 산군은 살피소서.”

백호산군이 양구(良久)*에 왈,

“진실로 선재(善哉)라. 이는 충의의 말이다. 그러나 들으니 요사이 다람쥐로 더불어 무삼 결원(結怨)이 있어 남의 겨우살이 양식(糧食)을 도적함은 어쩐 연고이뇨?” 하고 인하여 다람쥐를 불러들여 서대주로 대송(對訟)할새, 다람쥐의 ㉠ 소지(所志)를 내어 서대주에게 읽혀 들리며 분부 왈,

“서대주는 들으라. 다람쥐 소지 원정(原情)이 이와 같

으니 사실 이허(事實裏許)가 과연 이러하뇨? 조금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라.” / 서대주 이 말을 듣고 전상을 우러러 소리를 높이며 왈,

“산군의 명령을 듣고 어색하온 말로 감히 여쭙기 어려운지라, 바라건대 잠깐 머무르시면 한 장 소지를 베풀어 의신의 뜻을 아뢰겠나이다.”

산군이 이에 허락하니 서대주 종이와 붓을 취하여 잠시 동안에 일장 소지를 지어 올리거늘, 산군이 그 소지를 받아 보니 가라사대,

(중략)

“옛날 한 태조는 진나라를 멸하고, 함양에 들어가 부모(父老)*로 더불어 삼장법(三章法)을 언약할 제 살인자는 죽이고 상인자(傷人者)와 도적은 죄에 다 다스리기로 국법을 밝혔사오니, 원컨대 산군은 진상을 명찰하신 후에 만일에 의신이 도적에 나타나는 형상이 분명하올진대 궤히 의신을 명백하게 그 죄명을 집어내어 나중에 다른 짐승으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산군도 덕화를 멀리 베풀지 못하사 교화 널리 흐르지 못함으로 이런 송사가 생기는 것이오니 스스로 탄식만 하옵시고 의신 등의 쟁송함을 그르다 마옵소서.”

백호산군이 서대주의 소지를 본 후 말이 없더니, 이윽고 제사(題辭)*를 부르매 그 제사에 가로되,

“예로부터 일렀으되 재하자(在下者)는 유구무언이 어늘, 당돌히 위를 범하여 나의 덕화 없음을 꾸짖으니 죄당만사라. 그러나 임금이 어질어야 신하가 곧다 하였나니, 위나라 임작은 그 임금 무후의 그림을 말하였고 한나라 신하 주운은 그 임금 한제의 그림을 말하였더니, 너는 이제 나의 무덕함을 말하니 너는 진실로 임좌와 주운이 되고 나는 진실로 무후와 한제 되리니, 너같이 곧은 자 어찌 다람쥐의 양식을 도적하리오. 어불성설이니 다람쥐는 엄형정배(嚴刑定配)*하고 서대주는 즉시 풀어 주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의신: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양구: 시간이 꽤 오래 지남.

*부모: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제사: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에 쓰는 판결이나 지령.

*엄형정배: 엄하게 형벌을 다스려 귀양을 보냄.

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우화소설 : 우화소설은 우화가 지닌 인물과 사건의 전형성, 풍자성, 윤리적 목적의식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당대 생활의 재현을 지향하는 소설의 장르적 성격상 특정한 사회제도와 이념, 풍습과 문화, 혹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관심을 보인다.
- 송사소설 : 송사소설은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다. 송사소설의 갈등 양상은 신분 갈등, 가족 성원 갈등, 향촌 사회의 계층 갈등, 권력의 횡포와 저항 의지와 갈등, 관습·규범의 억압과 극복 의지와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송사소설은 과제 부여와 과제 해결의 구조를 지니며, 송사 사건의 결말이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뚜렷이 부각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송사소설은 현실적 주요 관심사의 소설화, 우연성이 절제된 구성, 현실에 대한 고발 의지 등을 지니고 있다

- ① 게으르고 부도덕한 인간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우화소설이군.
- ② 서대주의 승소로 끝나는 작품의 결말은 선인의 승리라는 교훈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군.
- ③ 다람쥐의 무고, 백호산군의 재판, 서대주의 변론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 구성을 통해 우연성을 절제하고 있군.
- ④ 재판을 통해 악인을 징벌하는 내용은 당시 사회에서 송사의 공정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았음을 반영하는 것이군.
- ⑤ 부자인 서대주와 가난한 다람쥐의 갈등은 빈부의 차이로 인한 향촌 사회의 계층 갈등이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2. 백호산군과 서대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백호산군은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여 상대를 회유하고, 서대주는 자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를 거절한다.
- ② 백호산군은 상대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을 추켜세우고 있으며, 서대주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의 노여움을 풀고자 한다.
- ③ 백호산군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위협하고 있으며, 서대주는 상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있다.
- ④ 백호산군은 비유적 상황을 들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대주는 직설적 어법으로 상대의 허점을 공격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중학교 때 ‘만수’라는 친구와 가까이 지냈던 일을 기억하며 그 당시 만수의 집에서 만수 외삼촌을 만났던 것을 떠올린다.

곧 이분은 우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만주 땅의 드릴한 마적 이야기며 불가사의한 중국 사람과 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북만주 눈보라 치는 밤에 승냥이의 울음소리, 마구간의 말이 추위에 발 옮겨 짚느라고 언 땅에 내는 소리, 늦나그네 지나가는 썰매 방울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처량해져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정작 이렇게 돌아오면 되레 그때의 일이 그리워진다는 만수 외삼촌 자신의 이야기. 이런 만수 외삼촌은 만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 만수를 데리고 다시 대륙으로 갔다. 그 뒤에 만수가 그냥 대륙에 있는지 혹은 소원이던 마도로스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만수 외삼촌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방문을 열고 벽에다 새로 큰 들창까지를 뚫어 보다 넓고 새로운 세계로 통하게 한 이야기는 흥안령 저쪽 이야기다.

자작나무 숲이 들어선 구릉성의 산맥과 잇달아 펼쳐진 무연한 초원. 거기 여러 십, 여러 백 마리씩 무리를 쥘 다니는 이리 떼. 소들은 밤이면 이들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방위하기 위해 자기네의 어린것을 가운데 두고 뺨둘러 뿔을 밖으로 향하고 자고, 말들은 또 말들대로 자기네 어린것의 주위에 머리를 안으로 모으고 발을 밖으로 하고 자는 곳. / 그 속에서 몽고 사람들은 소박하기 짝이 없는 목가적인 생활(지금 와서 보면 반드시 그런 생활만도 아닐 듯싶지만)을 영위하고 있다.

(중략)

주인의 지른 소리로 짓기를 멈추었던 개들이 아까보다 더 극성스럽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이리 떼가 더 가까이 나타났나 보다. / 이때 마주 앉았던 일본인 객이 벌떡 일어났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어디다 감춰 가지고 있었는지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주인이 약간 놀라는 빛으로 손을 들어 일본인 객의 앞을 막듯 했다. 일본인 객이 술로 해 붉어진 얼굴을 주인에게로 돌렸다. 왜 그러느냐는 듯, 내 이제 그놈의 이리를 보기 좋게 쏘아 잡을 테니 두고 보거나 하라는 듯. / 주인은 들었던 손을 거두면서 조용한 말로, 정 쏘려거든 허공에다 한 방 쏘아서 쫓아 버리고 말라고 했다. 이 말에 일본인 객도 제 고집을 세우지 않고 밖으로 총만을 내밀어 무턱대고 한 방 쏘고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자연 짐승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산속에서는 그게 날짐승이건 길짐승이건 심지어는 한 마리의 벌레까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도덕처럼 돼 있다는 것. 특히 외지에서 온 손님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리떼를 만났을 때 수중에 총을 가졌더라도 직접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정 이리들이 성화를 먹이면 그저 한 방 허공에다 대고 총소리를 내는 정도로 쫓아 버리는 게 상책이라는 것. 얼핏 직접 쏘아 버리는 게 이리 떼를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같이 생각키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그것도 인가 근처라면 한두 마리 쏘아 넘어뜨린대도 무방하지만 만일 무인지경에서 선불리 총질을 했다가는 봉변을 당한다는 것. 이리란 놈은 다른 짐승이 다 그렇듯이 화약 냄새를 몹시 싫어하고 겁내기도 하지만 한번 피를 본 뒤에는, 그것이 자기네의 피건 어떤 다른 것의 피건 한번 보고 냄새를 맡은 뒤에는 달아나기는커녕 되레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 여기서 주인은 얼마 전 어디선가 있는 일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 셋이 술이 취해 가지고 밤길을 가다 이리 떼를 만났다. 추근추근하게 굴면 허공에다 대고 총 한 방씩을 쏘아 가며 가까운 인가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만 술 취한 김에 이리 떼를 향해 불질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총알 다하는 것이 목숨의 마지막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기에는 세 자루의 총대와 함께 피 묻은 옷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을 뿐이었다.

주인의 말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밖에서 또 이리라도 나타난 듯, 개들이 다시 몸을 피하여 짊어 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인이 밖을 향해 지른 소리와 일본인 객이 좀 전처럼 권총을 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거의 동시였다. ㉠이번엔 주인이 손을 내밀어 막지 않았다. 일본인 객이 일어섬은 좀 전처럼 허공에 대고 한 방 쏘려는 것이려니 생각한 듯. / 그러나 어두운 등잔불 속에서도 이쪽으로 돌린 일본인 객의 갑작스런 흥분으로 해 핏기 걷힌 얼굴에는 좀 전과는 달리 분명히 ㉡무엇을 경멸하는 듯한 빛까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거 다 변변치 못한 인간들이기에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씩이서 그것도 총을 가지고 잡혀 먹히지 될 말이냐고,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에도 사격에 손꼽히는 명수였지만 이제 대일본 제국 신민의 숨씨를 한번 뵈어 줄 테니 자세히들 보라고. 일본인 객의 얼굴에는 벌써 어떤 말 못 할 살기마저 내뿜쳐 있었다. / 그제서야 주인은 ㉢약간 놀란 빛으로 손을 내밀어 일본인 객의 앞을 막으며, 자 그러지 말고 앉아 술이나

한잔씩 더 하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로 술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객은 그 술일랑 이따가 이리떼를 격퇴시킨 뒤에 축배로 들자고 하고는 주인의 손을 피해 밖으로 나서고 말았다.

주인은 좀 당황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의젓한 말로 만수 외삼촌에게, 정 저렇게 이리를 쏘아 보아야 직성이 풀리겠으면 인가 근처기도 하니 한번 쏘아 보게 내버려 두자고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일본인 객이 나가고 한참 후에야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해하며 뛰어나가는 주인을 따라 만수 외삼촌도 나가서 일본인 객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주인과 함께 돌아온다. 다음 날 만수 외삼촌이 눈을 뜨자, 주인은 만수 외삼촌에게 권총을 보여 주며 근처에 아무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인은 다시 여기에 난 것이 무슨 자린지 아느냐고 했다. 눈여겨보니 거기에는 본시 그랬을 리 없는 자국이 세로 가로 무수히 나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무슨 줄 같은 것으로 함부로 긁어 놓은 것 같은 자국이.

주인은 만수 외삼촌의 눈앞에서 권총을 한 번 뒤집었다. 거기에도 같은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다.

이게 뭐냐고, 만수 외삼촌이 권총에서 눈을 들자 주인이 사뭇 침통한 어조로,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요, 했다. ㉣등골이 오싹했다. / 이리의 이빨 자국이요,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라?

다음은 주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았다. /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

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본인 객은 이리떼를 두려워하는 만수 외삼촌과 주인을 깔보고 있었다.
- ② 일본인 객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서서 이리떼를 향해 총을 쏘았다.
- ③ 만수 외삼촌은 이리떼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는 않는다.
- ④ 주인은 일본인 객이 이리떼로부터 무사하도록 제 나름대로 애썼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 ⑤ 주인은 만수 외삼촌이 잠에서 깨기 전에 혼자 나가 일본인객이 쓰던 권총을 가져왔다.

4. 위 소설의 구성과 등장 인물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위 소설의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보 기> —————
(외화) - 나 / 만수 / 만수 외삼촌
(내화) - 주인 / 일본인 객 / 만수 외삼촌

- ① 외화의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② 외화에 나오는 한 인물의 경험담이 내화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 ③ 내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화의 다른 인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내화의 인물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다.
- ⑤ 외화의 인물에 의해 자신이 겪은 과거 이야기가 내화에서 회상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딸의 얼굴이 눈같이 희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어
 두 살에 능히 말을 하되
 앵무새보다 능란하였다.
 세 살에 수줍음을 아는 듯
 놀아도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
 금년이 바로 네 살인데
 능히 길쌈질을 배우기도 했다.
 어찌하여 빼앗김을 당했는지
 갑자기 번개처럼 사라졌어라.
 비로소 ㉠ 어린 새끼 떨어져 죽는 건
 새 동지 나쁜 탓임을 깨달았노라.
 도를 배운 나는 아픈 생각 씹어 삼키나
 아내 울음은 언제 그치려나.
 보건대 발 가운데
 곡식의 어린 싹이 돌아날 때
 혹시 뜻밖에 우박이 오면
 모두 맞아 꺾여지나니.
 조물주는 생명을 이미 만들어 내고
 조물주는 생명을 또 사정없이 빼앗도다.
 피고 시름이 어찌 그리 덧없는가.
 변화함은 도리어 거짓 같도다.
 인생이 가고 옴이 모두 허깨비거니
 아서라, 너와는 영영 이별이로구나.

5. <보기>의 ㉠~㉥중, 위 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 <보 기> —————
 죽은 이를 추도하는 애도시는 아내의 죽음을 추도하는 도망(悼亡)시, 자식의 죽음을 추도하는 곡자(哭子)시, 벗의 죽음을 추도하는 도봉(悼朋)시 등이 있다. 애도시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슬퍼하는 비탄,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진혼, ㉡죽은 이의 생전 모습이나 성품을 칭찬하는 칭양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식의 죽음을 추도하는 곡자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은 당황스러움과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면의 심리 묘사를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 현상의 묘사를 통해 인생의 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애뜻한 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사람의 일생은 기쁨과 슬픔을 경위로 하여 짜 가는 한 조각의 비단일 것 같다. 기쁨만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으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없다. 기쁘기만 한 듯이 보이는 사람의 흉중에도 슬픔이 깃들이며, 슬프게만 보이는 사람의 눈에도 기쁜 웃음이 빛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쁘다 해서 그것에만 도취될 것도 아니며, 슬프다 해서 절망만 일삼을 것도 아니다. (중략)
 나의 막내아들은 지난 봄에 초등 학교 1학년이 되었어야 할 나이이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그 때 이 아이는 '신장종양'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아동병에 걸렸다. 그러나 곧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왔다. 그런데 오늘, 그 병이 재발한 것을 비로소 알았고, 오늘의 의학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선고(宣告)를 받은 것이다.
 아이의 손목을 하나씩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우리 내외는, 천 근 쇳덩이가 가슴을 눌러 숨을 쉬기도 어려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것은 시골서 보지 못한 높은 건물과 자동차의 홍수, 사람의 물결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그에게는 티끌만한 근심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맹목으로 만들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빠, 구두.”
 그는 구두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두가 신고 싶었나 보다. 우리 내외는 그가 가리킨 가게로 들어가, 낡은 운동화를 벗기고 가죽신 한 켤레를 사서 신겼다. 어린것의 두 눈은 천하라도 얻은 듯한 기쁨으로 빛났다.
 우리는 그의 기쁜 얼굴을 차마 슬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마주 보고 웃어 주었다. 오늘이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요, 우리에게는 질식할 듯한 암담한 날임을 누가 알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天崩)’이라고 한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 표현이 옳음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 의사의 선고를 듣고, 천 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으니, 이는 천붕보다 더한 것이다. 6·25 전쟁 때 두 아이를 잃은 일이 있다. 자식의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버이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까마득히 못 미침을 이제 세 번째 체험한다.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이가 밖으로 놀러 나갈 때, 나는 그의 손목을 쥐고,

“넌 커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사가 너의 병을 고쳐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나쁜 병을 고쳐 줄 수 있게 말이다.”

하고 말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었고, 그 후부터는 누구에게든지 의사가 되겠다고 말해 왔었다.

이 밤을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귀한 것은 한결같이 슬픔 속에서 생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없이 총명해 보이는 내 아들의 잠든 얼굴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그리고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나의 신념을 지그시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신(神)이여, 거듭하는 슬픔으로 나를 태워 나의 영혼을 정화소서.’

7. 슬픔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위 글의 글쓰기가 <보기>의 화자에게 충고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난 해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애달프고 애달픈 광릉의 땅에
 두 무덤이 서로 나란히 있네.
 백양나무 사이엔 쓸쓸한 바람
 숲 속에는 밝은 도깨비불
 지전으로 노희들 혼을 부르고
 너희들 무덤에 술을 따르네.
 당연히 너희 남매의 혼은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놀겠지.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리.
 황대 노래를 부질없이 부르며
 피눈물로 슬픔을 삼키고 있네.

<허난설헌, ‘곡자(哭子)’>

- 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퍼 하지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어 위안을 얻도록 해 보세요.
- ② 자식을 잃은 슬픔은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입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음껏 슬퍼하도록 하세요.
- ③ 슬픔에 젖는다는 것은 인생의 패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긴 인생에 슬픈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때마다 눈물지으며 약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슬픔은 약한 자들의 것이라 생각하며 이 슬픔을 극복합시다.
- ④ 당신과 나의 처지가 매우 비슷하군요. 하지만 슬픔에 젖어 생활을 다 제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신께서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이면에 슬픔 이상의 깊은 뜻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 생각하며 이겨내도록 합시다.
- ⑤ 결국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식의 죽음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신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8. 위 글의 글쓴이가 훗날 <보기>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글쓴이의 심리 변화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① 글쓴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죽음을 포함해 살아 있는 동안 접하게 되는 모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별이란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지상에 존재하는 존재이다. 합치될 수 없는 관계가 주는 안타까움이란 죽음보다 더한 것이 아닐까? 아들의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글쓴이는 더 큰 슬픔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③ ‘별’ 과 ‘나’ 사이에는 영원한 거리가 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만남을 기대하며 ‘정다운’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글쓴이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승화하며 현재의 심정을 가다듬고 있다.

④ 인연이라는 것은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같이 어렵게 맺어지는 것이다. 아들과 글쓴이의 인연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글쓴이에게 이런 인연의 끊김이란 곧 세상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⑤ ‘별’ 과 ‘나’ 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이다. 그것은 독립적인 것 같지만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글쓴이는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 전 인류적인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남당* 물가에 우리 집이 있거늘

무슨 까닭으로 ㉠ 다산초당에 머무는고?

底事歸依舊住茶

남군이 기거하시던 곳 그 자취를 느끼고 싶어서요.

欲識郎君行坐處

손수 가꾸신 꽃이 연못가에 피어 있어요.

池邊猶有手栽花 <제1수>

굴동* 서편 쪽으로 월출산 솟아 있는데

紅橋村西月出山

저 산마루 바위는 누구를 기다리나?

山頭石似望人還

이 몸은 천만번 죽어도 한이 끝내 남으리라.

此身萬死猶餘恨

저 산마루 바위처럼 망부석이나 되고 지고.

願作山頭一片頑 <제12수>

서산에 지는 ㉡ 해 임을 위한 슬픔인가

嶮嶮日色爲君悲

늙기 전에 상봉하지 못함을 한하노니

恨不相逢未老時

아무도 오토*를 붙잡아 맬 힘이 없다는데

縱乏膠漆烏兔術

남은 세월 내내 생이별로 지낼거나.

忍將餘景做生離 <제13수>

남당 봄물에 안개가 자욱한데

南塘春水自生煙

늘어진 버들가지 갓 핀 꽃향기가 여객선을 덮네.

渚柳汀花覆客船

여기서 곧바로 하늘가로 ㉢ 길이 통해

直到天涯通一路

배에 우리 아이 실으면 소내*로 달을 텐데…….

載兒行便達牛川 <제15수>

남당의 노래 여기서 그치나니

南塘歌曲止於斯

이 노래 마디마디 절명의 소리.

歌曲聲聲絕命詞

남당의 노래 들어 볼 것도 없이

不待南塘歌曲奏

저버린 마음이야 저버린 사람이 잘 알겠지.

負心人自負心知 <제16수>

- 작자 미상, 「남당사(南塘詞)」

*남당: 강진읍 가까이 있는 지명. 탐진강이 바다로 들

어가는 곳으로 예전에는 배가 달는 항구였음.
 *굴동: 강진군 도암면의 다산초당이 소재한 마을.
 *오토: 해와 달. 해에는 다리 셋 달린 까마귀가 깃들이고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는 신화에서 유래함.
 *소내: 다산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마현의 지명.

9. 이 글과 <보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十五越溪女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
差人無語別	남부끄러워 말 못 하고 헤어졌고야.
歸來掩重門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泣向梨花月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 임제, <무어별>

- ① <보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수줍음이 많으나, 이 글의 화자는 망설임의 태도가 없다.
- ② <보기>는 묘사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지만,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인물의 정서를 독백체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임에 대한 원망이 위 시는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보기>는 감정을 절제하는 화자가 등장하지만, 이 글은 수다스러운 성격의 화자가 등장한다.
- ⑤ <보기>는 배꽃과 달빛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낭만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 글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시적 화자가 <보기>를 지은 후 이 글을 지었다고 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보 기> —

잡스와 두어리마는 /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 성덕) //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
 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 성덕)

- ① 기다림 → 한탄 ② 외로움 → 원망
- ③ 그리움 → 분노 ④ 설레임 → 고독
- ⑤ 서러움 → 증오

정답 및 해설

1) <답> ⑤

<보기>에 제시된 우화소설과 송사소설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부자인 서대쥐와 가난한 다람쥐의 갈등은 그 원인이 빈부의 계층 차이와 그로 인한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의 도덕성의 결여, 윤리 의식의 상실에서 찾아야 한다. 다람쥐의 가난은 계층 차이로 인한 모순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덕을 보려 하고, 나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인물형이 다람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화소설이 지닌 윤리적·교훈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인간에 대해 고발·비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① 부도덕한 다람쥐를 내세워 윤리 의식이 마비된 인간을 풍자하는 우화소설이다. ② 윤리적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권선징악의 교훈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③ 잘못이 없는 서대쥐를 배은망덕한 다람쥐가 고소하고, 이를 백호산군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서대쥐의 변론이 이어지는 사건 전개는 고전 소설이 일반적으로 지닌 우연성이 절제된 필연적인 사건 구성이다. ④ 재판을 통해 선인이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 현실적 주요 관심사가 송사의 공정한 처리에 있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2) <답> ⑤

백호산군은 서대쥐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짐승의 우두머리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다. 이런 백호산군의 질책에 대해, 서대쥐는 자신이 짐승으로서 산군의 위엄과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자신은 천하의 우두머리인 당천자의 교지를 받은 몸이므로, 절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산군보다 우위에 있는 당천자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 것이다.

① 백호산군은 서대쥐를 회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짐승의 우두머리로서 산군의 권위를 내세워 질책하는 것이다. ② 백호산군은 상대를 비하하고 있지 않으며, 서대쥐 역시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다. 서대쥐는 오히려 자신이 당천자의 교지를 받은 몸이라 말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백호산군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은 맞지만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에 대해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서대쥐를 책망한 것이다. ④ 서대쥐는 자신이 절할 수 없는 이유를 당천자의 권위에 의지하여 주장한 것이다.

3) <답> ①

일본인 객은 주인으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즉 세 명의 총을 든 사람들이 이리떼에게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경멸의 빛을 보인다. 따라서 일본인 객이 경멸하고 깔본 것은 이리떼에게 당한 사람들이지 주인과 만수 외삼촌이 아니다.

② 총소리가 꽤 먼 곳에서 들려 왔다는 말에서 일본인 객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이리떼를 향해 총을 쏘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주인이 지른 이상한 고향을 이리떼를 쫓으려는 것이었으나, 결국 일본인 객은 이리떼에게 죽임을 당했다. ⑤ 만수 외삼촌은 술기운에 잠이 들고 날이 흰히 밝아서야 깨다. 그 사이 주인은 날이 새자 이리떼가 일본인 객을 죽이고 그 자리에 남겨 놓은 권총을 가지고 돌아온다.

4) <답> ②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만수 외삼촌’은 외화의 인물이기도 하면서 내화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 글의 핵심 사건, 곧 내화에서 서술되는 사건은 외화의 인물인 만수 외삼촌이 과거에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① 외화의 서술자는 ‘나’이다. 이 글에서는 ‘나’의 경험담이 아니라 ‘만수 외삼촌’의 경험담이 중심이 되고 있다. ③ 내화의 주인공은 ‘만수 외삼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내화의 다른 인물들인 주인, 일본인 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내화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로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아니다. ⑤ 내화에서 사건이 서술되는 방식은 현재적이지 회상 형식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현장감을 주면서 서술되고 있다.

5) <답> ⑤

‘조물주가 이미 태어나게 했으면서 / 조물주가 또 갑자기 빼앗아 가니’에서 자식을 빼앗아간 조물주에 대한 원망이 다소 드러나기는 한다. 그리고 ‘인생의 영고성쇠는 본디 덧없고’라며 이어지는 구절로 볼 때 운명의 인식,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는 구절은 찾을 수 없다.

③ ‘번개가 명멸하듯 갑작스럽기만 하네’, ‘조물주가 또 갑자기 빼앗아 가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어린 새를 떨어뜨려 살리지 못하고야 / 등지가 허술했음을 깨닫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답> ③

위 글에서는 죽은 딸의 생전 모습, 즉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애뜻한 정을 드러내고 있다. 딸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세생전 딸의 성장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대상 자체의 변화이지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아니다.

아울 기약이 없는 임을 원망하며, 비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7) <답> ④

<보기>의 화자는 자식의 죽음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나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식의 죽음 앞에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며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글쓴이는 <보기>의 화자에게 슬픔 이면에는 슬픔 이상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슬픔을 이겨 내자는 충고를 할 수 있다.

①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태도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껏 슬퍼하고 있지 않다.

8)<답> ③

<보기>에서 별이 매일 뜨고 진다는 것은 '나'와 별이 매일 만나고 이별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다. 그런 순간들이 모일 때, 별과 '나'는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시를 지었다면 이는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겪은 글쓴이가 아들과의 영원한 만남을 기대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① 아들의 죽음을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당연한 진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② 별과 '나'는 정겨운 느낌으로 묶이는 존재이지, 합치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관계는 아니다. ④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지극한 인연이긴 하지만, 아들을 잃게 됨으로써 세상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 글의 글쓴이는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리라고 생각하며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⑤ 이 글이나 <보기>의 시는 모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만 전 인류적인 관계까지 확장되고 있지는 않다.

9) <답> ④

이 글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직설적이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보기>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절제하는 한 소극적인 여성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 표출은 작가의 표현 방식 등에 따른 것이지만 문학의 갈래상 특성으로 볼 수는 없다.

10) <답> ①

<보기>의 시적 화자는 '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글의 시적 화자는 돌